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아내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는가?

방광염 때문에 내원한 30대 후반의 여성과의 상담 도중 흘러나온 이야기다. 25살에 결혼을 한 그녀는 3년여의 연애기간이 있었다. 혼인 전부터 둘은 한 달에 두세번 잠자리를 가졌으나 그녀는 별다른 성적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예비남편의 이끌림으로 마지못해 관계를 맺는 편이었고,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오르가즘'이란 무엇일까?

영화에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주체 못할 몸짓을 하며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었으나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또한 이해도 되질 않았다. 결혼 후에도 부부관계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전유물로 생각되었고, 흔히 말하는 '오르가즘'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다. 세월이 갈수록 남편과의 성관계는 하나의 의무였지 즐겁지 않았고, 오히려 통증만 있어 잠자리가 꺼려진다고 토로하였다.

'오르가즘'이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최고의 성적기분을 일컫는 극쾌감으로, 섹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은 사정과 동시에 오르가즘을 비교적 수월하게 느끼고 예외 없이 경험하지만 여성은 다르다. 여성의 경우, 천천히 달아올라 자신의 흥분도가 최고조에 달할 때 경험하게 되며 남자보다 완만하고 지속적이며 더 황홀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르가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매우 드물게 경험하는 여성이 뜻밖에도 많다는 것이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적 흥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제의 출발은 여성이 충분한 쾌감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사정을 해버린 후, 파트너의 마음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하산하는 남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 흥분이 채 되기도 전에 허탈하게 끝나버린 섹스에서 여성의 오르가즘은 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삽입 전에 충분한 애무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운동선수가 시합 전 워밍업을 충분히 하는 것처럼, 섹스도 충분한 전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10분 이상은 여성의 성감대를 자극시켜 질 윤활액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성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은 자신의 흥분도를 차츰 알게 되고 쾌감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오르가즘에 도달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성감대를 개발시키고 서로 노력하여 섹스가 즐겁도록 만들어야 황홀경의 오르가즘이라는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극치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상대남성의 책임이 절반이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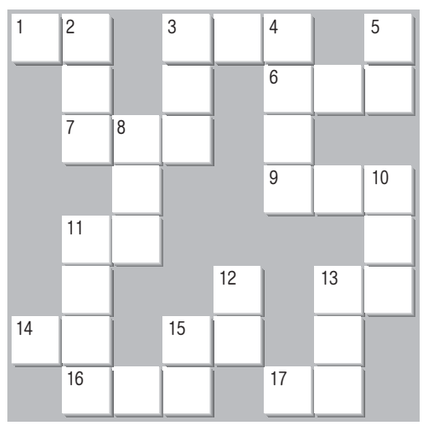
최소한 10분 이상?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여성상위가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체위가 될 수 있다. 체위 특성상 질의 G spot과 음핵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체위 보다는 남성의 사정이 늦춰져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성독자들은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배려하는가? 혹시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점에 대해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242>



➜ 가로풀이

1.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 또는 프로구단에서 보유한 선수를 트레이드 등을 위해 내놓음. 그 구단은 이번에 상당수 투수들을 ~했다. 3.남을 속이거나 모략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서 거짓으로 꾸민 사건. 그 사건은 그의 ~으로 밝혀졌다. 6.남에게 품는 나쁜 감정. 7.일 년 내내 해면이 얼지 않는 항구. 겨울에 해면 동결 지역에 있으면서도 난류의 영향으로 해면이 얼지 않는다. 9.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곳. 그는 군대를 ~로 생각했다. 11.많은 사람. 또는 불교에서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3.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 그의 ~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14.나라가 지닌 경제력이나 부. 15.어려운 형편이나 처지. 그 친구가 ~에 처했는데 내가 앉아만 있을 수 없지. 16.중국 삼국시대에 위의 여포가 타던 준마의 이름. 뒤에 촉한의 관우가 소유했다. 또는 매우 빠른 말을 이르는 말. 17.회의나 회합 등을 시작함. 또는 의회,전람회,박람회 등을 엶.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를 선언했다.

↓ 세로풀이

2.학교 수업이나 집회 등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적는 장부. 새로 오신 선생님은 ~를 들고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씩 차례대로 불렀다. 3.관세 제도상 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으로 간주해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구역 내에서 외국 화물의 적재,양륙(揚陸),보관,가공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한 항구. 4.더없이 악하고 도의심이 전혀 없음을 뜻하는 말. 그는 ~한 범행을 저질렀다. 5.아이들이 무엇이 모자라거나 못마땅하여 떼를 쓰며 조르는 일. 그 녀석은 반찬 ~이 심했다. 8.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또는 한 학교를 같은 해에 나온 사람. 그와 나는 같은 중학교를 나온 ~이다.→동기생. 10.장인과 장모를 통틀어 이르는 말. 11.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워낙 ~이라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적들을 그들 두 사람의 화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12.앞쪽에 보이는 경치. 이 아파트는 베란다에서 보이는 ~이 괜찮다. 13.청중들에게 기악이나 성악,대중가수의 노래 등을 감상하게 하는 공연. 그 방송사는 자선 ~를 열었다.→콘서트. 15.사람이 오래 타서 지친 말. 또는 바둑에서 살아나기 어려운 돌. ~를 살리다.

내	숭		식	생	활			
	배	기	량		력			서
		성			소	화		전
	초	복				류		
열	등			부		계		몽
	학		총	각				유
	교	통	량			역		병
		점				전		

〈함께 풀어봅시다 241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박건영·순천시 조례동

박선영·광주시 서구 농성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뉴스퀴즈

55.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새 국무총리로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관료 출신으로, 국회 인준을 거쳐 총리에 취임하면 지난 1983년 옛 상공부 출신인 진의종 총리 이후 24년만에 경제 관료 출신 첫 총리로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한덕수 ② 문재인 ③ 염상국 ④ 한명숙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음 1월 23일 乙巳)

子 36년생 중인의 협조가 새롭게 나타난 격이요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48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요. 60년생 투자는 미루라.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도. 행운의 숫자 : 21, 25

丑 37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급진한다. 61년생 흉이 변하여 길이 된다. 73년생 관파, 재파, 쌍파가 우려된다. 8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손이 줄어든다. 행운의 숫자 : 05, 26

寅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확신이 필요하다. 6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74년생 흉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7, 29

卯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로다. 51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기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절대축소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5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12, 30

辰 40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2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4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6년생 천극이면 대화 대손을 불면하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 11, 34

巳 41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3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7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午 42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54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제사가 순조롭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8, 37

未 43년생 미리서 신중한 체면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라. 55년생 고행이 우려된다. 67년생 타인의 중상모략 사기 기만을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하다. 79년생 많은 조심이 필요한 하루다. 행운의 숫자 : 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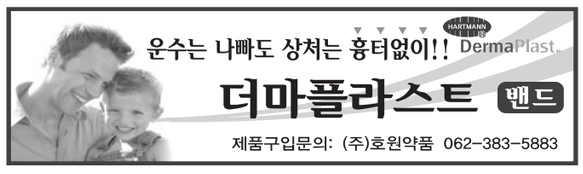
申 44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6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8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80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행운의 숫자 : 1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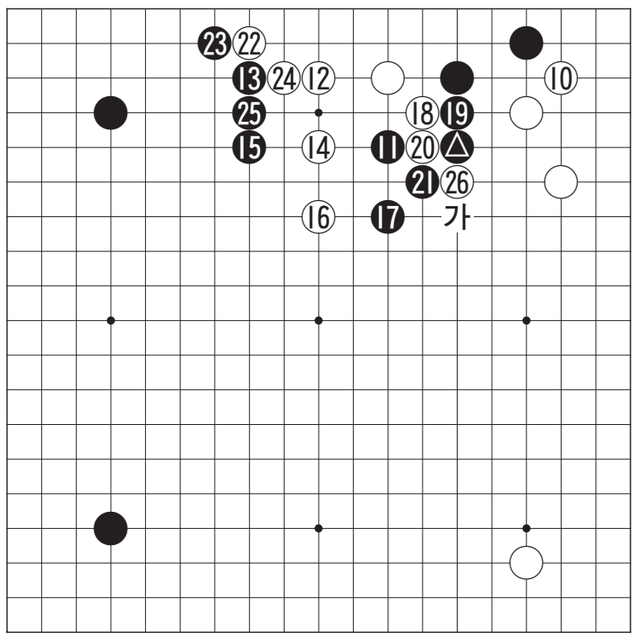
酉 45년생 외형축소 가내 실속 재점검 하라. 57년생 서로서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하는 일에 강적을 만나는 형상이니 가족간에 협조해야 극복한다. 행운의 숫자 : 03, 45

戌 46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래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8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1, 35

亥 4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9년생 과한 친절과 서두르는 사람의 사기조짐이 보이니 경계해야 하리라. 71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소해야 좋으리라. 83년생 오늘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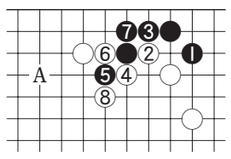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교직원부 결승전

역습을 부른 욕심

2보(10~26)

白 김상표 4단 〈운암중 교사〉 黑 정갑면 4단 〈진흥고 교사〉



〈참고도〉

흑 ⓐ로 뛰어나간 수가 호전적인 정갑면 4단의 기풍을 엿볼 수 있는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3삼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백 2 이하의 수순을 거쳐 8까지가 예상된다. 축이 불리할 때는 8로 'A'에 두어야 한다.

김상표 4단도 싸움이라면 절대 사양하지 않는 기질이다. 백 10으로 귀를 차지하고 흑 11에는 12로 한칸 뛰어 호시탐탐 18의 급소를 엿보고 있다.

우상귀를 빼앗긴 대신에 정 4단도 13으로 협공하여 상변을 구축하고 있다.15로 뛰어 상변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 보이나 백도 16으로 뛰어나간 자세가 좋아 불만이 없다.

흑 17이 백 18의 역습을 부른 의문수였다.이 수로는 오른쪽 '가'에 뛰는 것이 정수다.

정 4단은 왼쪽 백을 공격할 마음이 앞선 나머지 17로 두었으나 막상 26으로 끊기고 보니 거꾸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루이, 여류국수전서 선승

루이 나이웨이 9단이 최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조혜연 7단을 275수 끝에 백 반집으로 꺾고 기선을 제압했다.

루이와 8번째 타이틀 쟁탈전을 갖고 있는 조혜연은 루이의 잇단 완착으로 손쉽게 승리하는 듯 했으나 끝내기에서 역전의 고배를 마셨다

선취점을 올린 루이는 남은 대국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류기전(국수, 명인, 기성)을 모두 석권하게 된다. 제2국은 오는 23일 열린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1천100만원(준우승 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58>

When did he step out?

그는 언제 나갔습니까?

A:**When did he step out**?
B:Just a moment ago.
A:When will he return?
B:I'm sorry, but I have no idea.

A:그는 언제 나갔습니까?
B:방금 전인데요.
A:그는 언제 돌아올까요?
B:죄송합니다만, 모르겠는데요.

step out : (잠깐) 자리를 비우다.
just+ 부사구 : 이 때 just는 '이제 막'의 뜻으로 부사구를 강조한다
I have no idea : 모르겠다
〈주의〉 만약 'I don't know'라고 말하면,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므로 사용을 피는 것이 좋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58>

ただいま

다녀왔습니다

A:**ただいま**。
B:お歸(かえ)りなさい。おなか空(す)いたでしょう。はい、ご飯(はん)よ。
A:わ、私(わたし)の大好(だいす)きなカレだ。いただきます。

A:다녀왔습니다.
B:어서와라, 배고프지? 자 여기 밥 차려놨다.
A:와, 내가 좋아하는 카레네! 잘 먹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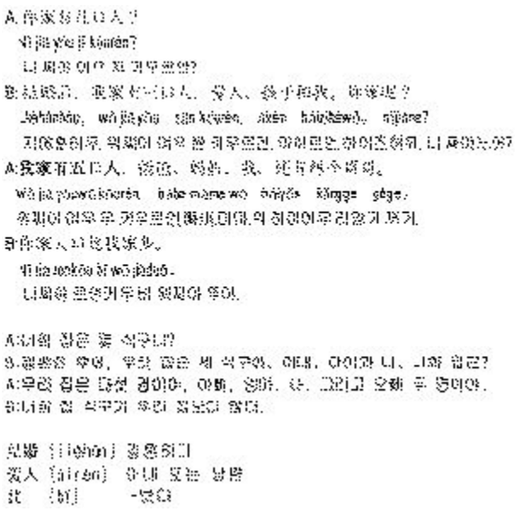
ただいま : 이제막, 지금막 이라는 뜻인데, 지금 도착했다, 다녀왔다라는 뜻이 있다
お歸(かえ)りなさい :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어서 와라
(위 두 문장은 손위 손아래사람에게 모두에게 사용할수 있다)
いただきます : 잘 먹겠습니다(일본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뒤 밥을 먹는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9>

我家有五口人

우리 집 식구는 5명입니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76>

易地思之 (역지사지)

바꿀 역, 땅 지, 생각 사, 어조사 지

관공서 사무실에서 가끔 눈에 띄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은 '입장을 바꾸어서 상대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역지(易地)'라는 말은 원래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전설상의 성인인 하(夏)나라 우(禹)임금은 치수(治水)를 잘하였고, 후직(后稷)은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쳤다. 이들은 태평한 세상에도 자기 집 문 앞을 세 번씩이나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공자(孔子)가 매우 칭찬하였고,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는 누추한 골목에서 한 도시락의 먹을 것과 한 표주박의 물(단사표음, 簞食瓢飮)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며 도(道)를 즐겼다고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맹자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임금과 후직과 안회는 같은 뜻을 가졌다. 우임금은 물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자신이 치수(治水)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하였다고 반성하고, 후직은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일을 잘못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한다고 반성한다. 우임금과 후직과 안회는 처지를 바꾸어도 모두 그러하였을 것이다(禹稷顔子易地則皆然)"라고 하였다.〈離婁篇〉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